

내 삶의 터닝포인트, 자격증

정순원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급



배움을 나눔으로

2017년 1월 27일 정확히는 설 하루 전 날이다. 몇 년에 걸친 도전으로 드디어 컴활1급 최종합격자 발표에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확인을 하고 너무 감격스러웠다. 다들 50나이에 편하게 직장생활하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신경 쓰고 힘들게 사느냐고 했다.

나는 초등학교 교육실무원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정년이 보장된다. 담당 업무는 정보, 과학이다.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엑셀이나 엑세스 등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지 않지만 사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함수면 충분하다. 그나마 엑세스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결혼 후 시어른 병간호, 육아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10년 넘게 지내다 예전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나로서는 어느 날 상공회의소 자격증에 관한 신문기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이거다.'바로 서점에서 워드프로세서1급 책을 구입해서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전업주부인 나로서는 공부를 할수록 뭔지 모를 자신감과 의욕이 생겼고 혼자 독학으로 필기 1번, 실기 두 번만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 날로부터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던 시간이 아까웠다. 그러던 차에 지인으로부터 초등학교 실무원 자리에 한번 도전해보라는 권유가 있었고 그렇게 학교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엔 그냥 아이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게 좋았었는데 시간이 날 때마다 컴퓨터 관련 다른 자격증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컴퓨터정비, 네트워크, 정보처리, 인터넷검색사 등등 하나씩 하나씩 컴퓨터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다. 처음 발령받은 학교는 부산 대변항에 있는 전교생 100명 남짓되는 조그마한 시골학교였다. 학부모 직업이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 또는 횃집을 운영하는 마을이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주위에 학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컴퓨터를 접할 수 없는 사각지대였다. 방과후 컴퓨터교실을 개설해도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학생들이 적다보니 오려고 하는 강사가 없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무료 컴퓨터 자격증반을 개설하겠다고 상의를 드렸고 그렇게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부터 하나씩 시작했다.

지금은 단일등급인 워드프로세서3급부터 시작을 해서 그해 졸업생인 6학년 12명 중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그렇게 시작된 자격증반은 선생님 반도 개설이 되었고 희망하는 모든 교직원들 역시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워드프로세서1급, 컴활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경단녀' 자존감을 높여준 자격증

학부모님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 번씩 학교에 오실 때 마다 일부러 찾아오셔서 고

맙다고 인사하고 가실 때면 그 무엇보다 뿌듯하고 보람을 느꼈다. 그 뒤로도 학교를 전보할 때까지 이어졌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설명회 행사에도 초대되어서 참가하기도 했었다. 자격증은 나에게 너무도 많은 감동과 기쁨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전업주부로 있다가 다시 시작한 직장에서 나이도 있는데 뭘하겠냐는 걱정 섞인 차가운 시선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따스하게 바뀌어 가고 나의 존재감이 조금씩 커져갔다.

그렇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는 컴퓨터활용능력1급에 대한 도전이 숙제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어렵고 합격률도 낮다고 하는 컴퓨터활용능력1급 주위에서 그 만하면 됐다고 뭘 그리 힘들게 도전하냐고 했지만 나로서는 어쩌면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한지 3주 필기는 한 번에 붙었다. 그렇지만 실기가 만만치 않았다. 계속되는 도전에도 엑셀이 합격이면 엑세스가 불합격 엑세스가 합격이면 엑셀이 불합격이었다.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쉬었다 반복하기를 1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지난해에 자격증을 취득했다. 어쩌면 상공회의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 한명이 아닐까 싶다. 도전은 맹목적일 때 더 강한 빛을 발하기도 한다고 한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

요즈음도 한번씩 그때 자격증 공부했던 선생님들을 만나면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특히 학생들은 스승의 날이 되면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 한다. 그때 자격증이 많은 자신감을 주었다고. 지금도 동료 특히 학생들에게 자격증에 도전하라 말하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주위에서 '자격증 전도사'냐고 그러다. 앞으로도 힘이 닿는 데까지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것이다. 50대에 취득한 컴퓨터활용능력1급 자격증은 또 한 번 나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자격증은 내 삶의 일부이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훌륭한 나의 스승이다. 나의 자격증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